

<해: 기호와 사유>

『장자』의 관점에서 바라 본 한국의 교육현실

<목차>

1. 들어가며
2. 본론
 - 2-1. ‘시비의 무의미’를 통해 본 한국의 교육
 - 2-2. ‘절대적 앎의 부재’를 통해 본 한국의 교육
 - 2-3. ‘실리 추구의 덧없음’을 통해 본 한국의 교육
3. 마치며
4. 참고문헌

불어불문학과
2014***** 노민주

1. 들어가며

본 논고는 한국의 교육과 입시 현실을 비판하는 타 논문의 입장과 비슷할 수 있지만, 비판하는 입장을 ‘장자’로 두어 조금 더 원초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교육열은 어떠한가? 가계에 과중한 부담을 안고가면서도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은 식을 줄을 모른다.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6%, 고등학교 이수율은 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등학교 이수율과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교육열을 이미 여러 번 극찬한 바 있으나, 이것도 이제 과거의 이야기이다. 현재 미국의 대학교에서는 수동적, 주입식 교육이 아닌 능동적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수업들로 변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목 및 유형	2014					
	평균 (만원)	100만원미만 (만원)	100~200만원 미만 (만원)	200~300만원 미만 (만원)	300~400만원 미만 (만원)	400~500만원 미만 (만원)
대상분포(%)	100.0	3.5	11.5	18.1	20.9	16.8
사교육비	24.2	6.6	10.2	15.9	21.2	27.2
과목 : 일반교과 사교육	19.1	4.8	7.8	12.0	16.5	21.6
과목 : 예체능, 취미, 교양 사교육	5.0	1.7	2.4	3.8	4.7	5.5
과목 : 취업관련 사교육	0.1	0.1	0.1	0.1	0.1	0.1
유형 : 일반교과 사교육	19.1	4.8	7.8	12.0	16.5	21.6
유형 : 예체능, 취미, 교양 사교육	5.0	1.7	2.4	3.8	4.7	5.5

<표1 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월평균 사교육비¹⁾>

위의 표는 우리나라 월평균 사교육비를 나타낸 것이다. 사교육비에 평균적으로 약 24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역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 ‘4당 3락’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한다. 실제 학년보다 4년 선행학습을 하면 대입에 합격하고, 3년 선행학습을 하면 불합격한다는 말이다. 기계가 돌아가듯이 공부를 주입하는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어떨까?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가운데 3년 연속 최하위이다. 교육 성취도는 1위인 나라. 그러나 ‘주관적 건강’,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등에서는 꼴찌인 나라. 이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이 치열한 경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얻어야 할 것을 얻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녕 행복의 길이라 말할 수 있는가?

“사물은 모두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동시에 모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다. 됴이 있기에 안 됴이 있고, 안 됴이 있기에 됴이 있다. 옳음이 있기에 그름이 있고, 그름이 있기에 옳음이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일방적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하늘의 빛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를 그렇다 함’이다.”²⁾

1) 국가 통계 포털

2) 장자, 오강남 풀이, 『장자』, 현암사, 1999.01.15, p.81

『장자』에 의하면, 한 쪽이 있으면 다른 한 쪽이 있기 마련이며 나아가 모든 것은 같은 경지에 다다른다고 말한다.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저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 역시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것’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저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오로지 한 면만 보고 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인 줄 알며, 모두들 그 길을 좇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현실을 『장자』를 통해 비판하고, 바로 걸어가는 길은 어떤 것인지,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시비의 무의미’를 통해 본 한국의 교육

이번 장에서는 시비를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며, 세상이 정해놓은 틀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장자의 말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체제만을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따르는 우리의 현실을 비판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생긴 ‘굳은 마음’을 따라 그것을 스승으로 떠받들면, 스승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 굳은 마음이 없는데도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은 ... 있을 수 없는 일을 있을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³⁾

이 글에서 나타난 ‘굳은 마음’이란 ‘성심(成心)’을 번역한 것이다. 장자는 객관적인 시비 판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며,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옳고 그름의 분별에 있어 사람마다 다른 기준과 관점에서 판단하게 되니, 같은 상황에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다. 장자는 이러한 관점을 성심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그 관점과 기준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어쩌면 초등학교 이전부터 아이들은 세상자체가 경쟁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지내온다. 부모는 아이들을 1등으로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한다. 고등학생은 1등급을, 대학생은 A+ 등급을 받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것은 기본이며 이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회가 만든 제도와 체제를 마치 유일한 답인마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생의 목표라 생각한다. 교육 현실의 내면을 비교해보고자 프랑스를 예로 들면, 프랑스는 대학입학을 하려는 모든 학생들이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라는 시험을 치른다. 이 시험은 논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논리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형태의 시험이다. ‘인간의 욕망이란 어떤 것인가?’,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 유형으로 출제된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맞추는가’가 아닌,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프랑스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분야 중 하나는 철학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견해는 어떤지를 알아가는 것이 공부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장자, 오강남 풀이, 『장자』, 현암사, 1999.01.15, p.76

장자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닌 살면서 형성된 마음인 성심이라고 말한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옳다는 것. 좋은 직장을 가져야 행복하다는 것. 그것은 이 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이며, 행복의 의미를 이렇게 가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정신적 병폐들로 참된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은폐하게 된다. 교육이란,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내 안의 행복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2-2. '절대적 앎의 부재'를 통해 본 한국의 교육

"...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인위의 시작이나 시비의 길 따위의 것은 결국 이처럼 주관적 판단 기준에 따라 견잡을 수 없이 번잡하고 혼란한데 내 어찌 이런 것이나 따지고 앎아 있겠는가?"⁴⁾

설결은 그의 스승 왕예에게 '보편타당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존재하는지'라는 질문을 하여 왕예는 그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위 단락의 두 번째 문장을 쉽게 말하자면 '제 눈에 안경'이라 말할 수 있다.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경험과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근본적으로 편협한 지식인의 한계를 갖고 있다. 단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편협한 지식인의 한계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⁵⁾ 2-1에서도 말했던 것과 같이, 인의와 시비 모두 특정 사회, 문화, 역사적 환경에서 형성된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규범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KBS1 프로그램 <명견만리>에서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의 내용이 상영되었을 때, 대입 수능능력시험의 외국어 영역을 실제 영어권 국가의 대학생들에게 문제를 풀어보라 했다. 20명 중 모두 맞춘 사람은 단 1명이었다. 그들은 이 문제가 정말 한국 학생들이 푸는 영어 문제냐고 물었고, 실제로 이 문제가 시험문제인지 묻는 학생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언어 영역에 출제되었던 한 시에 관한 문제를 실제 그 시를 쓴 시인이 풀어보았음에도 한문제도 맞추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두 경우 모두,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이 실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옳은 것이 옳지 않다는 결과가 쉽게 나오는데, 이를 더 절대적으로 분석하고 해체한다면 어떨까? 수능이라는 시험은 문제를 푸는 기술을 확인하는 시험이 되었다. 실제 능력이 아닌, 문제를 많이 풀어보았을 때 익혀지는 요령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며 그 요령을 가르치는 학원이 등장할 정도이다.

수능이라는 시험의 문제를 풀어보는 간단한 실험으로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그 문제를 풀어 '알고 있는 것'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고

4) 장자, 오강남 풀이, 『장자』, 현암사, 1999.01.15, p.111

5) 이진경, 「장자의 인식론에서 상대주의와 보편주의의 문제」, 한국도교문화학회, 2011.4, p.143-178

등학생들은 오로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단지 이러한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가 정해놓은 답을 찾는 요령을 익힌다. 사회가 정해놓은 답. 그 답은 답이 아닌 것이다. 장자에 의하면 시비는 가릴 수 없는 것이고,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체제의 답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일까?

2-3. ‘실리 추구의 덧없음’을 통해 본 한국의 교육

“참사람들은 먼저 스스로 도를 굳힌 뒤에 남을 도왔다. ... 덕은 이름을 내려는 데서 녹아 없어지고, 못된 앎은 서로 겨룸에서 생긴다. 이름을 내려는 것은 서로 빼격거리는 것이고, 못된 앎은 겨루기 위한 무기이다. 둘 다 흉한 무기라 완전한 삶을 위해서는 써서 안 될 것들이다.”⁶⁾

장자는 무언가를 할 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아닌, 이름을 알리기 위해 그 일을 한다면 이미 쓸모없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거나, 정치를 하더라도 자신의 참된 뜻이 아닌 명예나 실리를 추구하려는 데서 나오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비우고 주의의 것이 어떻게 변하여도 자신의 마음의 변화는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자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한국에서 살아갈 때, 인생의 목표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되었던 것은 앞서 말했다. 이름을 알리고 출세를 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대학 입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대입 전형이 다양화되면서 논술고사가 들어섰고 그 이후에는 곧바로 논술을 가르치는 사교육이 성행했다.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근본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사교육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요령’만을 알려주는 사교육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자기소개서 학원까지 생겨났다.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학원에서 더욱 부풀려서, 더욱 긍정적으로 대신 써준다. 수시모집에서 봉사활동을 반영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찾게 되었다. 그 전에 비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이에 뿌듯함과 교훈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진전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요령을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경우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제도가 학생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장자가 가상인물로 설정한 ‘공자’에 의하면 어떤 것에도 선불리 덤비면 안 된다. 먼저 스스로 도를 굳힌 뒤에 하려는 바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당연히 어려운 것이다. 성인들도 명예와 실리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장자의 말을 통해 좋은 일을 하려는 진정한 동기는 무엇인지 반성하고, 체제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체제 역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리를 위한 삶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방법과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방법을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6) 장자, 오강남 풀이, 『장자』, 현암사, 1999.01.15, p.170

3. 마치며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 현실과 방향들을 장자의 입장에서 비판해보았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은 정말 중요하다. 단 한번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수능 당일, 영어 듣기 시험을 위해 비행기가 뜨지 않으며, 시험장에 가는 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무원의 출근시간을 늦춘다. 시험시간에 흑여나 늦는 경우가 생길까봐 경찰관이 시험장으로 데려다주기도 한다. 다른 나라의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놀랄만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이 풍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대학 입시가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진학의 유무로, 또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에 의해서도 소득이 뚜렷이 구분된다.⁷⁾ 이미 한국의 뿌리 깊은 곳에 경쟁이라는 것이 심어져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뀔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아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알고만 한다면 더더욱 위험할 뿐입니다.”⁸⁾

‘앞’에는 끝이 없다고 장자는 말하고 있다. 이처럼 앞에도 끝이 없는데, 우리는 그 앞을 좇아 가는 것이 아니라 앞의 요령만을 좇고 있는 것이 아닌가? 끝없는 지식과 앞을 거만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된 교육이란 참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교육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출세를 위한 교육이 아닌 자아를 찾아가는, 진정한 앞을 배워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지금 애태타는 말을 안 하고도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아무런 공적 없이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나라 살림을 맡아 달라고 하면서 맡아 주지 않을까봐 염려마저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재질을 온전히 하면서도 그 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⁹⁾

그리고 위의 말처럼 참된 교육이란 진정한 사람됨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진정한 사람됨이란 몸이 아니라 그 몸을 움직이는 무언가이며, 인간 본연의 성질이다. 인간성을 보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자체를 온전히 하고 위신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저절로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교육 현실은 한 길만 바라보고 있는데 장자의 말처럼 한 쪽이 있으면 다른 한 쪽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체제를 따르려 할 필요가 없으며, 그 체제는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닌 사회가 만들어놓은 ‘틀’일뿐이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실리와 명예를 위해 공부를 해서는 안 되며, 진실로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앞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7) 정원규, 「교육의 본래 목적과 공정성의 입장에서 본 대학입시의 문제」, 사회와철학연구회, 2011.4, p.107-140

8) 장자, 오강남 풀이, 『장자』, 현암사, 1999.01.15, p.141

9) 장자, 오강남 풀이, 『장자』, 현암사, 1999.01.15, p. 246

4. 참고문헌

이진경, 「장자의 인식론에서 상대주의와 보편주의의 문제」, 한국도교문화학회, 2011.4.

장자, 오강남 풀이, 『장자』, 현암사, 1999.01.15.

정원규, 「교육의 본래 목적과 공정성의 입장에서 본 대학입시의 문제」, 사회와철학 연구회, 2011.4.